

북한개발소식

09

2020 September

통권 179호

| 이달의 주제 |

코로나 19와 선교, 그리고 북한



코로나 19와 선교, 그리고 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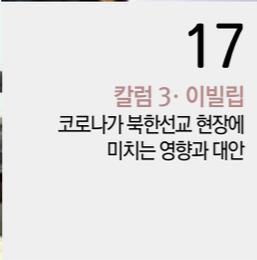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월간 **북한개발소식** 2020 September

CONTENTS

이달의 주제 :

코로나 19와 선교, 그리고 북한

 <p>01 권두칼럼 코로나 19와 선교, 그리고 북한</p>		 <p>07 칼럼 1· 오픈도어 현장사역자 현장사역에 있어서 코로나19의 영향과 그 이후</p>	
<p>12 칼럼 2· 조용중 코로나 19 시대의 선교</p>	 <p>17 칼럼 3· 이빌립 코로나가 북한선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p>		<p>37서평 통일선교담론</p>
 <p>23 칼럼 4· 김아모스 중국의 선교환경의 변화</p>	<p>29 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18)</p>	 <p>33 북한 뉴스</p>	<p>40 북한 기도 제목</p>

글을 시작하며

코로나 19가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이 심각하다. 각 국가의 노력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은 어느정도 진정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는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날씨 변화 등에 따라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계속해서 많은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고 인도, 브라질 등 이머징국가들은 코로나를 막지 못해 큰 곤란에 빠져 있다. 한국도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국가이지만 최근 재확산되는 코로나 확산으로 애를 먹고 있다. 코로나19는 기독교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회적으로 대면 접촉에 대한 거부감이 증가하는 데다가 코로나 방역을 명목으로 대부분의 모임이 일시적으로나마 금지당하면서 기성교회의 어려움이 매우 커졌다. 기존의 목회 패러다임이 근본부터 흔들리는 상황이다.

선교 현장의 피해도 심각하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에서 올 4-5월 코로나 19 관련 선교사 4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교현지(제3지역 포함)

에 머물고 있는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선교사역이 위축되었다’(80%)고 답했다.¹ 선교현지의 선교사 중 95.3%은 식량과 물 공급에서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83.9%는 신변의 위험도 많이 느낀다고 호소했다. 한국교회나 후원자들로부터 오는 선교후원금도 41.3%가 ‘줄었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선교지역이 상대적으로 경제 수준이 낮고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더욱 크게 다가오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문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단시일 내에 극복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백신 보급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이후도 문제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신종플루, 조류독감(AI), 사스(SARS), 에

1 기독교신문. (2020.06.02). 코로나19 직격탄, 선교사 '3중고'에 시달린다. <<https://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782>>



<21세기 주요 바이러스들 (경향신문 카드뉴스)>

볼라 등 다양한 바이러스들이 수년 간격으로 위세를 떨치며 사람들을 괴롭혀왔다. 코로나로 인해 바뀌는 사회적인 인식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에도 거리두기 생활화 및 대면 접촉 지양이 미덕이 되고 사람이 밀집한 곳은 피하는 것이 권장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 현지인과의 긴밀한 접촉이 필수적인 선교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선교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북한에 대한 선교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불가피한 변화

그 동안 선교는 주로 선교사를 선교 대상 지역에 파송하는 것을 의미했다. 현지에서 선교사가 살면서 그곳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현지인과 동화되어 살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제자 양육을 통해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선교 방법은 타겟 지역에 장기간 거주가 가능해야 하고,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대면 접촉 환경이 보장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종종 비자 문제 등으로 거주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체로 이러한 전제조건은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는 이러한 전제를 상당히 약화시킨다. 먼저 국가들이 전과 달리 외국인의 출입을 꺼리게 되고 비자 심사도 까다로워지고 있다. 그나마 비즈니스를 명분으로 나간 선교사들은 이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외국인으로서 타국 체류에 제약이 심해질 전망이다. 입국 이후에도 전과 같이 사람들을 접촉하고 교체하는 일을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 외에도 기독교를 탄압하거나 선교를 금지하는 지역의 경우 방역을 명목으로 강해지는 통제가 큰 장애가 된다. 사람들의 이동이 전에 비해 철저하게 체크될 뿐 아니라 사역 간에 전염병에 걸리게 된다면 관계 당국에 의해 전체 동선과 활동이 조사되는 상황이 되어 사역의 안전과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최근 주요 선교 현장이 기독교인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박해가 존재하는 곳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더욱 우려스럽다.

물론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기존 파송 선교사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는다. 현지 문화를 배우고 동화되면서 현지인과 접촉하며 관계를 쌓아가는 방식의 선교는 가능한 데로 최대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제약 역시 고려하면서 선교의 방법과 지경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온라인을 통한 선교이다. 코로나19 이후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사역도 주목받고 있다. 각종 모임

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예배가 필수화되고 있고, SNS를 활용한 신앙 양육과 상담도 점차 일상화 되고 있다. 선교 현장에서도 이러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발전된 매체를 활용한 선교는 어찌보면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필수적인 소양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을 활용한 선교는 그 한계도 분명하다. 온라인 상의 소통은 오프라인 상에서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대체하기 어렵다. 거기에 선교 대상지역 중 상당 국가가 인터넷에 대한 국가의 검열 및 통제의 우려가 존재한다. 이런 맥락을 고려해볼 때 온라인을 통한 선교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필수적인 대면 접촉 기회를 알차게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선교사에게는 어려워진 장기 거주 부담에 따라 거점 중심의 순회, 방문 선교 등을 통한 꼭 필요한 접촉만 하는 선교 방식의 활성화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센터를 건립하고 교회 건물을 세우면서 사람을 많이 모으는 방식의 선교는 가급적 지양하게 되고, 대신 사람과 공동체에 집중하는 선교가 더욱 강조될 것이다. 현지인 기독교 리더를 길러내고 그들이 스스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도록 돕는 선교가 필요하며, 선교사는 이를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사실 전부터 가장 이상적인 선교의 모습으로 현지 교회가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자립하고 스스로 선교하는 모델이 이야기되곤 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선교 현장의 주요 고민 중 하나는 현지 교회와 성도들이

외국 선교사에게 의존하는 경향이다. 수년에서 십년 이상의 장기간의 선교에도 불구하고 현지 교회가 사역 및 재정의 영역에서 자립하지 못하고 외국인 선교사 및 선교사를 통해 공급되는 지원에 의지하는 사례가 어렵지 않게 관찰되어왔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는 이러한 선교사 의존형 선교 구조에 큰 충격이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선교사들의 타의적으로 출국하게 되고 외국인의 방문 및 활동에도 제약이 걸린다고 한다면 현지인 스스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현지인들이 자립하게 되는 계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선교사를 필요 없게 만드는 선교, 즉 현지인 중심의 선교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선교의 방향에 대한 고민

북한은 이전부터 대면 접촉을 통한 선교가 매우 제한된 선교지역이다. 북한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에게 압축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역 가운데 연결된 고향으로 돌아간 성도들 또는 그루터기 성도들 대해서 믿음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선교가 그간 주로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선교 사역 방식은 기존의 관점에서 보면 약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고 제대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어



<올 4월 19일 중국 단둥 세관의 모습. 북한 국경이 닫혀 한산한 모습이다 (RFA)>

렵기 때문이다. 또한 역으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리한 사진/영상 촬영 및 무리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다가 오히려 선교 대상자들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사례도 왕왕 있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본다면 기존 북한 선교는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의 선교를 해왔다는 점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교와 일정부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북한 선교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북한의 국경 봉쇄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에도 많지 않았던 소통의 기회마저 줄어들어 상황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선교사가 체류하게 되는 제 3국도 방역을 명목으로 상당한 수준의 이동 통제와 추적을 실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중요해지고 있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제 3국 출신 사역자 양성이다. 안타깝게도 그간 많은 북한 선교 현장은 이와 관련된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는 제 3국 출신 현장사역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이

지만, 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돕는 대신 단순히 사역의 통로로써 재정 후원을 매개로 사역 파트너의 관계만을 유지하는 방식의 협력이 주가 되어왔다. 이렇게 재정을 매개로한 협력은 곳곳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현장 사역자의 경우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재정 문제가 엮이면서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개인의 이윤을 위해 활동하는 등 사역의 목적이 변질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고, 또 지원하는 선교사와 선교단체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철수하거나 지원이 중단되면 후속 조치 없이 사역도 그대로 중단되고 제 3국 사역자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사례도 있었다. 물론 이러한 수준의 관계를 가지는 데에는 보안적인 이유도 있다.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추방당하면 끝인 선교사들에 비해 현장 사역자는 오랜 기간 조사와 추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사역 이상의 내용을 아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또 선교 단체에게도 결코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화되어가는 통제가 외국 국적 선교사에게 미칠 활동 제약을 고려해볼 때 현장 사역자와의 협력 및 역량 강화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안과 안전을 지키면서도 단순 사역 파트너를 넘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내지 성도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방식도 고민이 필요하다. 기존과 같은 영육간의 필요한 물품과 자료를 공급하는 일은 가능한데로 최대한 힘써야 하겠지만, 가능하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일에 힘

쓸 필요가 있다. 육적으로는 지원이 없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기술과 생산도구 제공에 신경 써야 할 것이고, 영적으로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예로 기존 성경공부나 제자 훈련 자료는 대부분 신앙의 기초에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생적으로 신앙을 키워가고 느슨하나마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 외에도 다양한 신앙의 소양이 필요하다. 리더십이나 가정생활 등 공동체를 위한 내용 등 실제 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 그리고 이단문제나 기복 신앙 및 잘못된 신비주의 등 연약한 성도들을 빠지기 쉬운 미혹에서 보호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멈추지 말고 제대로 신앙이 성장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다른 영혼을 돌보는 영적 리더십을 갖추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라디오 방송은 중요한 선교의 수단이다. 계속해서 유용한 신앙 자료를 비대면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북한개발 소식 2020년 7월호에서 다루었듯이 대북 라디오 선교 방송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연속성 등 남한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방송에 비해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단순한 설교나 예배 방송이 아닌 북한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제작, 송출하기 위한 투자가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선교현장은 기존에도 대면 접촉을



〈오픈도어선교회 사역자가 아프리카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 하람(Boko Haram)의 폭력사태로 고향을 떠난 나이지리아 난민 기독교인들과 기도과 격려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최소화하는 방식의 선교가 선택이 아닌 필수였던 선교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19로 인해 급격한, 근본적인 선교 방향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보다도 방역 등의 명목으로 사역의 기회가 더욱 제한되는 것에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마무리하며

기존의 가시적인, 물량주의적 선교는 이제 어렵다. 멋진 교회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을 모으면 성공이라는 식의 사역은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더욱 현장 중심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영적 리더를 양성하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선교의 관건이 될 것이다. 북한 선교현장도 더 많은 선교사를 제 3국으로 파송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현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현지의 사역자들이, 또 내지 성도들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단순히 물자 지원 및 기초적인 신앙 교육 뿐 아니라 영적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 물론 물리적 한계는 분명하다. 대면이 아니면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도 창의적으로 제안된 시간/공간적 제약에서 영적 리더를 길러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기도가 절실히 요청된다.

오픈도어선교회는 미전도 종족 전교나 교회 개척이 아닌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특별한 미션을 위해 일하고 있는 선교단체이다. 구 공산권의 박해받는 교회에 성

경을 밀수하여 전달하는 어렵고 위험한 사역으로 시작된 본 선교회는 현재 아랍권, 힌두권, 구 공산권, 아프리카 지역 등 박해가 심한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섬기고 있다. 공교롭게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한 지역들이 주요 선교 대상 지역으로 꼽히는 곳들이다. 본 선교회는 현지의 교회를 굳세게 하는 가운데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박해받는 교회가 다른 박해받는 교회를 돕는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고후 12:10). 바울의 고백이 바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들의 고백이다.

코로나라는 환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숙고해본다. 코로나가 교회에 미칠 막대한 피해와 제약에 대해 우려가 크다. 그러나 박해와 연약함 가운데서 고통받아온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삶으로 보여준 믿음의 증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된다. 주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롬 8:28)게 하신다. 이 코로나 사태도 교회와 선교의 체질이 개선되고 새로운 지경을 보게 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으며 글을 마무리한다.

현장사역에 있어서 코로나19의 영향과 그 이후

오픈도어 현장사역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COVID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한국선교 역사상 전례 없는 재앙이다. 많은 선교사들이 일시 귀국하여 사역이 멈추었고 대다수 선교훈련이 취소되었으며 선교현장 파송을 준비 중이던 선교사 후보생들도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다.

이는 북한선교현장도 마찬가지이다. 북한 선교의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1월말부터 현재 8월말까지 대부분의 사역이 멈추었다. 2020년 1분기와 2분기 남한입국탈북자수가 각각 135명, 12명이라는 사실이 나타내듯 현재 탈북과 남한행의 길도 멈춘 상태이다.¹ 이와 함께 한국행 탈북자와 접촉하여 그들을 도우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소위 “구출사역”역시 멈추어졌으며(물론 한국행의 길이 멈춰진 상태에서도 이미 보호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양육은 지속되고 있을 것이다) 제삼국에 방문한 북한주민

양육사역, 북한내부지원사역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역이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이다. 코로나 확산 초기 여러 이유로 한국에 방문한 선교사들의 경우기존에 받아놓은 거류허가(residence permit)와 비자가 중국당국의 정책에 따라 3월말부로 모두 취소되었다. 7월 중순 한중간 합의로 유효한 거류증을 가진 자에 한해 비자 재발급이 가능해졌으나 대다수의 선교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언젠가는 유행이 끝나고 상황이 진정되겠지만 그동안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한다. 중국에 남아있는 선교사들은 이방 땅에서 겪은 강력한 사회폐쇄 조치로 많이 지친상태이며 본인들의 이동 제한과 현지인, 북한주민들의 사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국 상황

한국인에 의한 북한선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북한과 우방이자 국경을

1 “2분기 한국 입국 탈북민 12명...사상 최저,” VOA, 2020년 7월 1일.

접한 중국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탈북자들의 주요 루트가 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사역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탈북자들이 남한행을 위해 동남아국가들에 머무르는 경우도 모두 중국을 통해 동남아 국가들로 이동한다는 것 그밖에도 지리적 인접성, 사역의 다양성, 기존사역의 역사와 축적된 네트워크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중국은 북한선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에 일어난 변화 중 하나는 개인에 대한 위치추적 시스템의 대대적 발전이다. 1월말 이후 각 지방정부별로 아파트단지 출입 대중교통이용등을 위한 앱이 개발되어 활용되었으며 이후 알리페이의 지엔캄마(健康码, 개인건강정보번호 및 QR코드)가 개발되어 이 앱이 없이는 이동과 큰 건물 출입 등이 불가능해졌다. 이전부터 이미 중국에서는 기차나 장거리 시외버스, 호텔투숙시에 개인 정보가公安당국에 실시간으로 등록되어오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관할 파출소별로 규정이 상이하나 일부 구역에는 성(省) 혹은 시(市)를 벗어나는 여행을 할 경우 거주지로 돌아온 후 24시간 이내에 파출소와 학교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 대부분은 유명무실한 것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활성화 되었다. 몇 달 전 동북지방의 대학교에서 학교의 허가 없이 다른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인해 그 유학생에 대해 퇴학, 귀국 처분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다. 뉴욕타임스의 지엔캄마 시스템 분석 결과, 지엔캄마 소프트웨어가 감독자로부터 접근 권한을 부여받으면 'Report Info And Location To Police'



〈우한 시민들이 반드시 소지해야 이동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건강코드 (저장신문)〉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감시 대상자의 위치, 도시명, 식별 코드 숫자가 시스템 서버로 전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 누구와 공유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²

최근 중국정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과학 기술,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그중 가장 큰 치적으로 내세워지는 것이 코로나 방역, 범죄자 추적-검거와 관련된 성과들이다. 텐왕(天网系统, 하늘의 그물)은 2015년 중국 공안부(경찰청)가 주요 도시에 국민 안전 및 범죄자 추적 명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국가 프로젝트로, 정교한 안면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안에 약 4억대를 추가 설치해 총 6억대 이상의 CCTV를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필자가 북중국경지역에서 사역하는 현지인 사역자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인구 50만이

2 “코로나19로 촉발해진 대중 감시 체계의 위험,” Coindesk, 2020년 3월 16일.

안 되는 국경도시에 텐왕이 관리하는 감시카메라가 수만 대가 있다고 한다. 실제로 중국의 언론에 소개되는 바에 의하면 현(县, 한국의 군 혹은 작은 시에 해당)급 도시들에도 만대 이상의 공공감시카메라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³

북한선교사역현장의 민감한 사역이 진행되는 경우 개인정보등록을 피하며 이동하고 투숙하는 방법 또한 사역자들 사이에 공유되어오고 있었으나 코로나19이후 적용되고 있는 위치추적시스템은 기술적으로 우회하거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이는 대다수 선교사들의 사역과 장거리 여행에 큰 제약을 가져올 것이다.⁴

북한상황

지난 5월 한국경제개발원(KDI)의 이석 연구위원은 “2020년 북한경제, 1994년의 데자뷔인가?”라는 논문을 통해 작금의 북한상황과 1994년의 상황을 비교했다. 그에 의하면 지금의 위기로 인해 북한의 경제가 1994년과 같이 무너질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지금의 북한경제는 1994년에 비견할만한 딜레마를 내제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북한의 경제를 주시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근 몇 년간 중국을 방문한 북한주민들로부터 북한의 경제가 위기라는 말을 자

주 들어오고 있다. 한번은 한 형제에게 “당신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만날 때마다 상황이 안 좋고 위기라고 하는데, 무슨 위기가 그렇게 자주 오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 말에 대답으로 돌아온 것은 “조선은 원래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게 힘들고 계속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자주 온다고 위기가 아납니까?”라는 말이었다. 실제로 북한에는 경제위기가 상존하며 주민들은 이에 어쩔 수 없이 적응하여 살아가는 상황이다. 2017년 본격화된 대북제재는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사회주의 붕괴 못지않은 악영향을 북한경제에 지속적으로 끼치고 있으며, 최근 반년간 코로나로 인한 봉쇄 또한 1994년 중국쇼크에 비견할 만하다. 게다가 최근 긴 장마로 발생한 수해는 2016년 발생했던 대수해의 피해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발생초기 북중국경 봉쇄와 함께 공식교류와 밀수 또한 엄격하게 금지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함경도 일부 국경도시에서는 갑자기 밀수가 재개되었다. 이는 북한정부의 묵시적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써 북한이 방역에 사활을 건 상황에서도 경제단절을 지속할 여유가 없음을 보여준다. 코로나 발생초기 2월과 3월에 북한물가와 환율에 큰 변동이 있었으나 곧 안정을 되찾은 일이 있었는데 만일 중국과의 비공식적 교류가 없었다면 경제상황은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외화벌이를 위해 북한으로부터 해외에 파견된 각급 사회 일꾼, 노동자들에 의하면 최근 상부로부터 진단키트 물품 상납 할당은 물론 “병원건립기금”, “XX지역 수해복구기금”등의

3 视频监控系统 织密城市防护“天网”, 东方财富网 2020年08月17日

4 이석, “2020년 북한경제, 1994년의 데자뷔인가?,” 『북한경제리뷰』, 제22권 3호 (2020, 5), pp.3-26.



<김정은 위원장은 올 8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 연설에서 "올해 여러 측면에서 예상치 못했던 불가피한 도전에 직면한 주·객관적 환경"을 언급하는 등 경제성장목표 미달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개발하였고 이를 사용하여 선교지의 형제자매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사역을 제한적으로나마 이어가고 있다. 아이폰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앱들이 지금도 개발되어 공개·판매되고 있다. 조금의 번거로움과 비용을 감수하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소프트웨어와 기

기, 스마트폰 앱을 활용할 수 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선교사의 중국 내 활동에도 제한이 늘어날 것이므로 선교사들은 이러한 통신도구들에 관심을 갖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중국에서는 선교사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과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코로나19국면에서 이는 심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회복될 확률은 없다. 어떠한 선교지나 현지인 동역자의 역할이 중요하기는 마찬가지이나 지금처럼 선교사의 활동이 위축되고 현장을 떠나야 할 경우 현지인 동역자의 역할은 더욱 증대된다. 선교사는 본인이 현지인의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하며 현지인 동역자의 신뢰를 잃을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혹여 현지인 동역자를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북한사역을 활발하고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선교사들은 열이면

열 모두 탁월한 현지인 동역자들과의 신뢰 속에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다. 이런 분들 중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의 사역을 진행하는 분들이 있으며 이중 대다수의 분들이 코로나 휴식기를 활용하여 다음스텝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북한은 수많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적응이 되었고 정권도 내구력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다면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권교체는 몇 번은 되었을 법할 위기를 잘 넘겨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안 유행하던 “북한급변사태”라는 말은 이제 진부한 말이 되어버렸다. 북한의 위기에 대해 잘못 얘기하면 양치기소년 취급받기 십상이다. 그러나 여러 자료들이 말해주듯 북한 경제에는 분명한 모순이 있고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 이후 우리가 생각하는 정권을 위협할 차원의 “급변사태”까지는 아니라도 사회-경제구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

이 오히려 슬기롭지 못한 판단이다. 그러므로 비록 현재 사역이 위축되었다 할지라도 현장을 지키며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선교사들이 줄어서는 안 된다. 2017년 초 한국선교사에 대한 대규모 추방이 있을 후 많은 사역이 인수계되지 않아 소멸하였으며 이들이 어렵게 구축해놓은 선교사-현지인 동역자-북한주민의 네트워크가 붕괴되었다. 떠난 선교사들의 빈자리가 새로운 선교사로 채워지지 않았으며 현지인에게로의 이양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국의 북한선교계는 이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올 초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그나마 남은 선교사들 대다수가 현장을 떠났다. 코로나 안정 후 왕래가 원활해질 때 이들 중 몇%가 돌아올까? 혹시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들과 함께하던 동역자들과 이들의 사역은 어떻게 될까? 각 단체와 선교사들이 쌓아온 선교역량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붕괴되지 않기를 기도한다.

명목으로 100달러 200달러씩 상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기존 정규 상납금을 채우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요구들이 조국의 코로나 대처 어려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강요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해외에 파견된 북한사람들은 어떻게든 여유자금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으며 한 지역의 노동자들은 최근 부업을 포함하여 하루 20시간씩 매일 일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해왔다. 부족한 수면은 20시간의 노동시간동안 눈치껏 조는 것으로 해결하는 실정이다.

우리가 고민할 것

코로나가 확산되고 전 세계에서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각 사역자들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각종 앱 활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방송사역의 역할 또한 재발견되고 있다. 일부 사역자들은 유용한 도구들을 발견

코로나 19 시대의 선교

조용중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사무총장)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의 여파는 가히 충격적이다. 처음에는 중국 우한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지역병 정도로 여겼으나 금세 중국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적 대확산, “팬더믹”이 선언되기에 이르렀다. Covid-19 실시간 현황판에는 매일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되는 중이다. 지금은 전세계 40개국의 나라에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사상 최고를 기록해 2차 대유행으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시대 상황은 세계선교의 흐름과 전략에도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세계선교방향에 대해서 다루고, 특별히 국경봉쇄와 심각한 식량난 가운데 있는 북한 선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1. 코로나 19 시대의 세계선교

첫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이 가로막혀있는 때라는 현실 인식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역주의가 강화되고 인종 차별주의가 심해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보호를 목적으로 비자를 거부하고 비행기 편을 취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입국금지(104국가-지



〈한국대학생선교회(CCC)의 온라인 사역 장면. (기독신문)〉

역), 격리조치(6개 국가-지역) 검역강화 및 권고사항 (55개 국가-지역)이다.¹ 예를 들자면 네팔과 같은 경우는 2020년 국내선·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되었고 국경이 봉쇄되었다. 태국은 모든 육·해·공 경로를 통한 입국이 금지되고 있다. 이미 언급했듯이 북한도 국경이 봉쇄되고 개성의 길목이 가로막혔다. 지역과 지역으로의 이동도 금지되었다.

전통적 선교의 방식은 선교 현지로 선교사

1 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외교부, 2020.7.29

가 직접 나아가 얼굴을 대면하여 복음을 전하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첫 출발부터가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현대의 기술 발달은 공간 장벽을 넘어 이미 전세계를 온라인을 통한 접속과 만남의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 오늘날의 과제는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의 결과들을 선교적 도구로 적극 활용하는가의 문제이다.

온라인 Zoom과 같은 영상회의나 Youtube를 통해서 소통하며 복음을 전할 수는 있다. 중동의 어느 선교사는 Facebook을 통하여 무슬림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고 복음을 제시하여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도 한다. 대면 불가능한 상황을 보완하여 선교사역을 지속하며 오히려 더 나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으로 찾아가 더 많은 영혼을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의 선교사는 전통적 대면방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공간에서도 영혼을 얻으려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창의적으로 다양한 모든 방법으로 복음의 일꾼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선교의 시기인 것이다.

코로나 시대의 선교를 위해서는 창의적 자원의 개발이 필요하다. 선교사 본인에게는 비대면 기술적 접근의 방법들이 습득되어야 하며, 가까운 그리스도인의 발굴과 이주난민들을 활용하여 국내 이주민 사역 활성화를 위한 연결고리도 발굴해야 한다. 선교현지에서는 접근 가능한 사람을 발굴하여 사역을 돕는 유산문화권 지도력 개발, 현지 리더십 개발 등

다양한 방면의 선교를 위한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기본에 충실한 선교를 해야 한다. 한국교회의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몇 달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교회는 예배참석 수가 현저하게 줄었으며 재정도 감소되었다. KWMA에서 실시한 선교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지에 머무르는 선교사의 41%가 한국교회로부터 후원금과 재정 후원이 감소되었다고 밝혔다.² 예배참석자의 감소는 특별히 청년 학생부의 감소가 뚜렷하게 두드러진다. 미래의 선교사 훈련생이 될 수 있는 대상층도 얇아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는 기본에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다. 소수정예일지라도 진짜 선교적 용사가 상황을 반전시키는 법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재정의 부담이 큰 이벤트성 선교사역을 지양하고 본질적인 복음 사역에 집중해야 하겠다. 다음 세대 선교사 개발에 있어서도 모든 자원을 개발하여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다. 평신도 자비량선교사, 전문인선교사, 비즈니스선교사, 디아스포라 현지한인교회와 MK들의 선교적 개발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셋째,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전인적으로 돕기 위한 총체적이며 전인적 선교 방향이 필요하다. 심리적인 불안과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증대되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우들과 함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

2 선교사 설문조사, KWMA, 2020

며 개인 모니터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들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교제가 제약되고 소모임이 조심스러워졌다. 소리 높여 찬양하며 기도하는 경배의 시간도 제한되었다. 이러한 관계적 단절과 모임, 예배의 제약은 심리적 불안, 고립과 우울,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전된다. 코로나 이후의 선교는 심리적 불안 상태의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관계적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립된 사람들은 더욱 관계에 목말라 한다. 선교사가 먼저 가장 가까운 동역자들과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회복된 관계가 교회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날의 선교 사에게는 예수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변함 없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다. 든든한 복음의 안정감으로 불안한 사람들에게 찾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자유가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2. 코로나 시대의 북한 선교 전략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서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서 국경이 봉쇄되고 지역 간 이동이 금지되었다.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국경과 도시를 이중·삼중으로 걸어 잠갔다. 각 도와 시에는 단속팀이 조직되어 본인이 사는 동네 외에 타 도시로 움직이는 것이 금지되고 여행증은 아예 발급 자체가 되지 않고있다고 한다. 마을

마다 보초를 세워 이동하는 모든 사람을 감시한다는 것이다.³ 도시 안에서도 시민들이 자주 오가는 상점과 식당이 전파 장소가 될 것을 우려해 방문객을 상대로 발열체크와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폐쇄적인 국가로서의 북한이 코로나 시대 속에 더욱 심각한 폐쇄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봉쇄 상황 속에서 북한주민의 식량난은 더욱 심각해졌다. 북한 경제는 장마당을 통해 돌아가는데 장마당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비축해둔 식량도 국경지역 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대로 상황이 악화된다면 올해에도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을지 모르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8월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무국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봉쇄된 개성에 식량을 특별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8월 6일 "국가최대비상체제의 요구에 따라 완전 봉쇄된 개성시의 방역형편과 실태보고서를 분석하고, 봉쇄지역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식량과 생활보장금을 당 중앙이 특별 지원하는 문제를 토의 결정했으며 이와 관련한 긴급조치들을 취할 것을 해당부문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⁴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발표가 북한 전체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대외적인 걸치레에 불과한 언론 발표에 불과

³ 카타콤 소식, 한국모퉁이들 선교회, 2020.05 (통권 357호)

⁴ 연합뉴스 2020.8.6



〈전차에 소독약을 뿌리는 북한 방역 요원 (로이터)〉

한 셈이다. 특히 올해에는 심각한 홍수까지 겹쳐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식량난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전 세계적 전염병의 대유행은 세계화의 흐름을 막고 지역적 폐쇄성을 강화하게 된다. 북한과 같은 전통적인 폐쇄국은 코로나로 인하여 기존의 닫혀진 문을 더욱 굳게 걸어 잠그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만나고, 때로는 북한 지역에 들어가 직간접적으로 선교했던 북한선교의 방법들에도 커다란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 19 시대 속에서 북한을 위한 어떠한 선교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가?

첫째, 코로나 시대의 의료와 방역 지원을 통해서 북한과 막혀있는 교류를 열어가는 물꼬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포함하여 경제적 교류를 포함하여 문

화적 연결이 끊겨 있는 상태이다. 예전에 비하여 인도적 지원도 위축되어 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방호복 등의 물자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북한 선교를 더 넓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조금씩 신뢰를 회복하는 늦은 걸음이 필요하다. 이러한 신뢰회복을 통하여 남북한의 교류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길이 이어지리라 믿는다.

둘째,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에 대하여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 19로 인한 봉쇄에 홍수까지 겹친 북한이 식량난으로 많은 주민들이 심각한 영양실조 내지는 기아로 인한 죽음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금은 정치적 목적을 따라 계산할 때가 아니다. 상황을 지켜보며 기다릴 수 있는 때도 아니다.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먼저는 형제 자매의 생명을 살려 두어야 한다. 당장은 빵을 건내지만 언젠가는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셋째, 한국의 문화 콘텐츠와 IT를 이용하는 선교적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육체는 국경을 넘어 들어갈 수 없을지라도 통신, 인터넷을 통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유롭게 흘러 들어갈 수 있다. 이미 언급했다시피 온라인 영상과 SNS를 통한 복음 제시를 코로나 시대의 선교 대안 중 하나로 지적했었다. 북한의 독특한 사상 체계를 고려한 콘텐츠 개발을 노력해야 한다. 문화의 옷을 입은 복음의 빛줄기가 그 곳에 들어가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넷째, 북한에서 넘어와 한국 중국 등 인근 지역 나라로 흩어진 이들에 대한 선교적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 특별히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데 국내

입국 규모는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12월 말 기준 31,339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이 한국에 처음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제자로 만드는 선교적 사역이 필요하다. 막상 국내에 정착한 후에는 그들의 마음 문이 닫히기 때문이다. 이들을 위해서 탈북민 교회에 대한 지원, 타문화권으로서의 북한선교를 인식하여 전문 사역자 그룹의 양성이 필요하다.

북한 선교는 우리의 몫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 복음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 오늘 코로나 19로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을 돕고, 홍수로 인한 식량난에 고통당하는 저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어야 한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와 IT를 결합한 복음이 서서히 그 곳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 복음의 통일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오늘도 북한 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구한다.

코로나가 북한선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

이 빌립 (북한기독교총연합회 회장, 통일소망선교회 대표)

I. 들어가며

전 세계와 함께 한국사회는 2015년 메르스(Mers)에 이어서 지난해 말 중국 우환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을 지금까지 받고 있다. 코로나19는 한국 사회를 어려움에 몰아넣었으며 한국교회를 비대면 온라인(Online) 주일예배와 주중 모임들로 바뀌게 하였다.

2020년 2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비드19(Covid-19)로 명명한 코로나19는 팬데믹 현상으로 전 세계의 모든 영역에 큰 변화를 주고 있는바 이는 전 세계 선교현장은 물론 북한선교현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어떤 선교도 마찬가지로겠지만 북한 선교 현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첫째로 안정적인 선교대상과 선교 전략들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선교사와 선교 현장 관심 자를 비롯한 선교 동력과 선교비가 있어야 한다. 셋째로 이를 위하여 선교 교육과 함께 선교 현장을 위한 중보기도 사역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동안 복음 통일 한국과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는 이러한 부분들을 선교단체들과 함께 잘 감당해 왔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배와 교육, 신앙모임들이 극히 자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배가 국가적 방역의 강제성에 의해 온라인 영상예배로 전환됨으로 선교 동력이 유지 발굴하는 것과 안정적인 선교 재정이 마련되는 것들이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장기화 된다면 분명히 북한선교 현장에 다양한 변화들이 올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북한선교 사역을 하던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선교 현장의 변화를 생각하여야 하며 대안을 준비하여야 한다.

II. 코로나-19 이전의 북한선교 현장 조명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있기 전 지난 25년

이상 북-중 국경을 중심으로 한 북한선교 현장에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과 수많은 열매들이 있었다. 그 북한선교 현장들과 열매들이 무엇이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1. 북한 내지 복음화 사역

1994년 전후하여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들은 북-중 국경 사역을 통하여 1950년 이후 북한교회들이 북한 당국에 의하여 얼마나 철저히 탄압 말살이 되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려다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를 탈북자들의 증언들에 의하여 알게 되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루터기 성도들이 그 땅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기간 북한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적지 않은 사역자들에 의해 북한 내 선교사역들은 은밀하게 진행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수많은 북한 출신 사명자들이 그 땅으로 목숨을 걸고 다시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들을 통해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북한선교를 향한 간절한 기도와 헌신의 결과로 북한 땅에는 성경책들과 다양한 성경공부 교재들이 CD와 SD메모리에 담겨져 들어갔다.

2. 탈북자 미션홈 양육 사역

1990년 중후반 북한의 식량 기근과 자연재해를 피해 중국 땅으로 탈출하여 온 수십만 명 이상의 탈북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그

당시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들에서 파송한 선교사들과 조선족 교회들을 통해 보호 구제를 받으며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사역으로 인하여 많은 북한선교의 사명자들이 세워졌으며 그 열매가 북한 내지로 들어간 지하성도들이며 한국 땅에 들어온 탈북민 출신 목회자 신학생들과 성도들이다.

이 사역은 북한선교에 있어서 북한 땅에 교회 재건을 목적으로 한 제자 양육 사역으로 가장 최근까지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온 뒷문 선교 영역에 속한 음지 사역이었으며 북한선교의 다양한 방법에 있어서 가장 큰 열매들이 맺어진 사역이다.

3. 평강공주 사역과 탈북 자녀 및 고아 사역

중국 땅 넓은 지역들에 북한에서 경제난으로 탈출을 하여 중국 남성들과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 무국적 탈북 여성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수십만 명이 살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선택으로가 아니라 강제적 인신매매로 인하여 중국 남성들과 가정을 이루었으며 자녀들을 낳은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이다.

중국 땅에는 극히 소수이지만 탈북자 출신 고아들도 있다. 이들 가운데 10대 여자아이들은 팔려 가고, 남자아이들은 노동 착취를 당하다가 선교사들을 만나 보호를 받고 한국으로 오기도 하였다.

한국교회 선교사들과 조선족 사역자들이 평강공주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겨왔지만 중국에서 숨어 살아가고 있는 다수에 속한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평강공주들은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삶, 고통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4. 탈북자 구출 사역

김대중 정부 집권 기간부터 지금까지 한국 국내에서는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자유를 찾아 온 3만 4천 명 가량의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브로커를 통하여 들어온 탈북민들이 다수이지만 기독교 선교단체나 선교사, 기독교 NGO를 통해 들어온 탈북민들도 적지 않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2019년까지 한해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의 숫자는 연평균 1,100명 전후가 된다.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한국행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북한의 근본적인 정치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북쪽에서 중국으로 탈출하여 대한민국으로 오고자 하는 탈북자 행렬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선교단체들이 탈북자 구출을 돕는 목적은 사회적 관점 혹은 정치적인 인권 차원에서 아닌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통당하고 학대당하는 자들을 돌보기 위함이다.

III. 북한선교 현장에 끼친 코로나-19의 영향력

전 세계는 2020년 현대 의학과 과학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뉴노멀(New Normal)¹ 시대를 맞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선교현장과 아울러 북한선교현장도 파급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현상으로 북한선교현장들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 변화들은 어떤 것들인지 자세히 나누어 보고자 한다.

1. 선교사들의 이동이 멈추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하였을 때 북한선교 사역 현장들에서 봉사하던 대다수의 선교사들은 국내로 철수하여 들어왔다. 이들의 대부분은 잠시 몇 달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지나갈 때까지 쉬고 선교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재 6개월 이상 선교사들은 선교현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상황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문제 뿐 아니라 북한선교와 관련된 옛 공산권 국가들은 선교사로 추정되는 한국인들에 대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밀착 감시를 하고 있으며 분명한 비즈니스 사업가나 유학생이 아니면 장기 비자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가 중국과 경제적인 신냉전 대립 관계에 들어감에 따라 디아스포라 출신 해외 국적자들의 북한 선교 동참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 뉴노멀은 보편화된 사회, 문화, 경제적 표준을 의미하는 시사 용어로서 2004년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최기에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진단과 대응을 위해 제시된 경제 용어였으나 2020년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 이후로는 전 시대와 달리 새롭게 변화된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2.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이동이 어려워졌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입국해 하나원을 나오는 탈북자들의 숫자가 급감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는 상태이다. 지난 두 달 동안 남자 하나원에 들어온 탈북 남성의 숫자는 각각 1~2명, 그리고 지난달 여성 하나원에 들어온 탈북 여성은 12명인 상태이다.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자들이 거의 없는 것도 있지만 북한을 탈출하여 나왔어도 또는 중국에 오래 살았던 탈북자여도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려고 하는 중국 당국의 검문과 이동의 차단 때문이다.

또한 올해 봄부터 시행된 홍콩 보안당국의 보안법으로 인한 핍박을 피해 홍콩을 떠나려는 홍콩 정치 망명객들의 탈출을 차단하려는 중국 당국의 국경경비 강화에 의해 당분간 자유를 얻으려는 탈북자들의 한국행은 많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3. 한국교회의 비대면 예배와 교인 감소로 인해 선교후원금의 변화가 있다.

현재 한국교회는 지난 3월에 있었던 비대면 온라인 영상예배 전환과 8~9월 사이에 있는 비대면 주일예배의 영향으로 인하여 충격적인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해방 전 일제 치하와 6.25 전쟁 기간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당 주일성수를 지켜왔다.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비대면 온라인 주일예배가 성도들의 신앙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주일성수로 보지 말고 전염병 확산을 막는 의학적 관점에서 토대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을 하는 차원에서 해석하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입장이라는 두 견해로 충돌하고 있다. 방역을 위해 교회의 예배와 소모임을 자제를 강제시키는 것 때문에 정부와 교회는 충돌을 하고 있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의 비대면 온라인 예배의 장기화와 소모임 자제들이 계속 진행된다면 앞으로 북한 선교의 재정적 통로의 역할을 하던 교회들의 헌금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이러한 문제는 북한 선교 사역 현장의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IV. 코로나19 이후 북한선교현장의 변화 예측과 대안들

1. 코로나-19가 북한선교현장에 미치게 될 영향

앞으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북한선교에 미치게 될 영향은 클 것이다. 그 영향은 첫째로,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그동안 선교현장에서 사역을 하였던 선교사들이 많이 위축이 되어 선교현장에서 물러나 확률이 커지게 될 것이다. 둘째로, 그동안 강세를 보여왔던 구출사역과 미션홈 양육 사역이 많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셋째로, 한국교회가 북한선교 사역에 감당해왔던 선교후원이 줄어들 것을 예상할 때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2. 북한선교 사역현장 변화의 대안을 준비하라

하나님께서서는 분명히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정화시켜 살리시고, 새롭게 북한선교 현장을 세워가실 것이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전 세계와 한국의 각 사회 영역에서의 뉴노멀을 내다보며 북한선교 현장의 변화에 대비한 전략들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1) 기존에 헌신한 선교 역량을 보존해야 한다. 새로운 북한선교 전략과 방법론의 변화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눈길을 돌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북한선교 현장

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현장 선교사들과 선교 헌신자들의 역량을 보존해야 한다. 한 사람의 헌신된 사람이 준비되고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영적 물질 시간적 지불이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기존에 선교현장에서 수고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선교사들이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2) 미래적으로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역과 전략들을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선교 현장의 변화들을 지혜롭게 바라보고, 겸허하게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무엇이 될 것인지 눈을 돌려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한 사역들이 어떠한 사역들이 있을 것인가?

첫째로,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 살아가고 있는 탈북자들이 장차 열리게 될 북한선교의 동력으로 보고 평강공주 사역과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북한주민 혹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션홈 사역에 눈길을 돌리고 이 사역들을 어떻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진행할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 전략중에 하나로 온라인을 통한 양육 사역 방법들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북한 내지 지하성도 가정들을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그들을 통하여 북한이 변화가 되는 사역들을 더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먼저는 이들을 영적으로 살리는데 북한으로의 복음 방송 송출 그리고 SNS를 통한 복음 메시지 전달, 성경과 다양한 영상 자료들을 수록한 SD메모리를 사용할

중국의 선교환경의 변화

김아모스 (빌리온선교회 대표)

글을 시작하며

세계는 지금 'COVID19'의 창궐로 인하여 큰 혼돈과 변화에 직면해 있다. 2019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되었으나 2020년 3월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면서 'COVID19'는 한 국가나 어느 대륙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모든 사람들을 덮치고 있다. 세계최고의 국가로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유럽의 이탈리아, 세계최대의 인구와 힘을 가진 중국, 여전히 세계 재패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일본, 그리고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아주 가난한 나라들, 그리고 IT강국 의료강국을 자랑하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다. 인간들이 과학이나 의학의 추적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세계적인 질병 앞에서 어쩌면 속수무책의 지경에 이르렀다. 'COVID19'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아울러서 세계를 재편성 하는 것 같은 변화를 가져왔고, 지금도 전에 없던 다양한 변화를 추구해야만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삶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 삶의 전 영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양하다.

월스트리트 저널(3월26-28일)은 온라인-디지털 기술이 향후 재택교육, 바이오산업의 급속한 발전, 공연-예술-스포츠 산업의 퇴조, 소외되었던 현대 가족 간의 유대 강화,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새로운 직장문화 형성되는 등의 변화를 예견하였다. 즉, 전염병의 확산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의사소통의 변화, 회의 방법의 변화, 문화의 변화, 교육형태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 즉 식당이나 PC방, 도서관, 의료 시설, 박물관, 문화시설, 경기장 출입의 강력한 통제 혹은 폐쇄, 출석수업 대신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 직장의 재택근무 등의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당연히 기독교 신앙에도 말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왔다. 예배공동체로 모여 일상처럼 드리던 예배가 미디어 매체를 중심으로 모여 소위 '비대면 예배'의 형태로 드리게 되었고, 식탁공동체가 되어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던 일들이

수 있는 다양한 중국산 기기 북한내 반입을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 장기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코로나-19와 홍수피해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북한 지하성도 가정들에 충분한 경제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한국교회가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하는 것에 지속적인 관심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국내에서 신앙훈련과 목회훈련 선교훈련을 받고 있는 탈북민 출신 목회자 신학생들이 장차 북한선교의 귀한 동력으로 세워질 것으로 보고, 그들을 세워주는 선교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탈북민 목회자들이 세운 교회들이 정말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되도록 남한 목회자와 탈북민 목회자 사이를 멘토와 멘티 관계 형성 강화를 하여 그들의 목회를 도와야 할 것이다.

이 밖에 북한선교 현자에서는 새로운 선교 방법들과 전략들이 있을 수 있다.

V. 나가면서

하나님께서서는 저 북한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한 자신의 소원이 반드시 성취되기를 원하신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구하며 그동안 충성을 다하여 헌신하여 온 한국교회와 선교단체들 선교사들을 코로나-19를 통하여 새롭게 세우실 것이다.

코로나-19는 분명히 북한선교 사역현장에서 뉴노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어떤 뉴노멀이 오게 될지 다는 알 수 없지만 이 사역에 하나님의 지혜들이 풀어지기를 기도하고, 북한선교 자원들의 연합들이 새로운 사역들을 위해 계속적으로 연합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아무리 북한선교 현장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질 것처럼 보이고, 사역의 패러다임의 변화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넓히고, 선교의 대상인 북한 주민들과 제3국 탈북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북한선교를 포기하지 않는 한국교회인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북한 땅에 수많은 주님의 몸 된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 땅에서 새로운 세계 선교의 사명자들이 일어나 남과 북이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는 선교 완성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어렵게 되었고, 성경공부나 제자훈련, 수련회 등도 비대면으로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낯선 땅 낯선 민족을 찾아가 현지인들 곁에서 함께 살며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역도 변화를 직면하고 있다. 현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은 이동금지와 접촉금지로 현지인들을 쉽게 만날 수 없고, 한국에서 선교지에 들어가는 선교사들은 비자와 항공권의 문제로 들어갈 수 없다. 상당수의 나라들이 외국인 입국 금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제는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

이글에서는 북한 선교의 기지가 되는 중국의 변화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중국의 변화는 'COVID19'가 가져온 변화뿐 아니라 그 이전에 시진핑 정부의 2018년 2월 1일 신종교사무조례 시행일 전-후, 그리고 'COVID19'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 중국의 변화

1. 중국 사회의 변화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이지만 경제체제는 자유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사상과 이념을 중요시 하던 전통적인 중국의 개념은 경제중심의 경쟁과 현대화의 물결에 떠 밀려가고 있다. 전통적인 개념으로 볼 때 이전의 중국과는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가 완연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중국은 큰 폭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1992년 한국과 수교당시의 중국사회와 교회는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화했다. 중국 국가차원에서 변화의 속도와 폭



(2018년 베이징의 가정교회 “시온(시안錫安)교회”를 정부가 강제 폐쇄했다. 사진은 봉인된 시온교회 출입문 (국민일보))

은 아주 빠르고 매우 넓다. 경제발전은 세계를 두렵게 할 만큼 빨라서 이미 G2에 진입하였다.

현대 중국사회의 변화는 산업화 현상, 도시화 현상, 농민공(農民工)의 출현, 정보화 현상 등으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빠른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 현상으로 인해 일반백성(老百姓)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다. 사회적 현상에 따라 삶의 근거지였던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하여 근로자(打工)의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주거와 자녀 교육, 차등 대우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이 현대 중국 사회의 큰 문제이다. 중국의 또 다른 세대라 일컬어지고 있는 빠링허우(80後) 혹은 지우링허우(90後) 세대이다. 특별히 시장경제, 개성화, 브랜드, 인터넷, 스마트폰, 세계화 등에 노출되어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중국 현대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다.

2. 중국 선교환경의 변화

중국은 거의 10년 주기(週期)로 종교정책의 변화를 시도한다. 2017년 9월7일 ‘종교사무조례 수정초안’을 발표하고 10월 7일 까지 의

견 청취, 그 후 국무원 상무회의 통과를 거쳐 2018년 2월1일 시행한 소위 신종교사무조례도 중국 공산당의 종교정책의 변화의 맥락이다. 시진핑은 공산당원을 포함한 인민들은 종교로부터 가치관과 신념을 추구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화(講話)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중국에서 종교정책에서 계속 시행될 것이고, 선교는 이러한 제한적인 한계를 염두에 두고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1) 중국선교의 위기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의 열기는 식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2013년경부터 불특정 다수가 ‘비자발적 귀국(非自發的歸國)’하는 선교사들이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신종교사무조례가 시행 전후로 선교사들이 ‘비자발적 귀국’을 하게 되면서 중국선교는 위기를 맞이했다.

또한 중국사회가 변하면서 교회도 많은 변화가 있다. 외적인 부흥이나 교회 건물의 대형화, 교회 재정의 증가가 눈에 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내적인 요소들도 바뀌었다.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선교적 필요가 달라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을 감지하지 못하여서 위기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 만난 한 선교사는 선교사의 위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사역의 대상인 중국인과 중국 기독교인인은 너무나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분야와 질’에 있어서 중국교회가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

고, 어떤 경우에는 중국교회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거나, 한국 사역자들보다 더 잘하는 영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거나, 그럴 능력이 없는 교회와 선교사들은 갈수록 중국선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필연적인 일로 여겨집니다.

중국선교에 있어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과 동시에 중국 교회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중국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역이 무엇인지 그 변화에 대처하는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다.

II. 신종교사무조례(新宗教事務條例) 시행 하에서의 중국선교

1. 신종교사무조례

중국 공산당 정부는 ‘종교사무조례’를 근거로 하여 종교를 관리하고 통제한다. 그동안은 2004년 11월 공포한 종교사무조례(국무원령 제 426호 문건)를 근거하였고, 2017년 ‘신종교사무조례’를 ‘국무원령 제 686호’ 문건으로 공포하고 2018년 2월 1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조례는 종교사무의 법치화(法治化)와 종교 단체의 법인화(法人化)를 추구하였으며, 총체적 관리와 통제에 법적근거를 제고(提高)하였으며, 기독교의 중국화를 시도하는 특징들이 있다.

2. 신종교사무조례 시행과 중국교회

‘신종교사무조례’에 필연적으로 큰 제제를 받는 것은 가정교회이다. 이미 ‘신종교사무조

례'가 시행되기 전에 절강(浙江)성 원조우(温州) 지역의 교회에 대한 공산당 정부의 핍박과 공권력 행사는 잘 알려진 바이다. 한 예로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北京)의 도시가정 교회인 시안(錫安)교회가 2018년 9월 7일 중국 공산당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 물리적인 폐쇄를 당하였다.

결국 정부의 관리와 통제 하에 들어있지 않은 교회, 즉 가정교회들은 다양한 형태의 핍박과 환란을 겪고 있으며, 예배공간이 물리적으로 폐쇄당하기 시작하며 가정교회들이 소그룹 형태의 가정교회 모임으로 전환되어 모인다.

3. 기독교의 중국화

중국 공산당은 끊임없이 기독교의 중국화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종교사무조례의 특징 또한 외부의 영향이나 간섭 없는 중국의 기독교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크다. 이광근은 기독교의 중국화에 대해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중국 기독교의 정신과 중국사상문화의 정수가 합일이 되는 것을 의미, 중국교회가 교회조직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 기독교인들의 부담과 책임감을 더욱더 갖게 하는 것, 기독교가 서방에서 전래된 외래종교가 아니라 중화민족이 함께 운명공동체로 느낄 만큼 일체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독교의 중국화를 세계화이 범주에서 이해해야 한다. 중국은 첨단적인 인터넷 환경과 선진적인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는 거대한 선교 현장임과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기로에서 세계경제의 주도적

위치에 있는 국가임을 기억해야 한다.

기독교가 서양종교가 아니라 중국사회와 국가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한 유용한 정신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신종교사무조례 하에서의 중국선교

중국사회와 중국교회, 그리고 선교환경의 커다란 변화는 우리에게 시대에 적합한 대응책과 선교사역의 변화를 요구한다. 기존의 선교 방법, 사역의 종류, 사역의 질(質), 사역의 대상 등 전반적인 중국선교 전략이 탈바꿈을 해야 한다. 여전히 중국을 가슴에 품고 있는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함태경은 '신종교사무조례' 시행 이후의 중국선교 전략에 관하여 이렇게 제안하고 있다.

첫째는 중국교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중국 내 사역은 피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 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점을 잘 분별해 소수의 전문가를 파견해 도움을 주되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함께 울어주고 영적 갈급을 채워 줄 진정한 동역자는 필요하다. 지식보다는 지혜를 찾아가도록 한국교회의 실패 경험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는 중국에 맞는 신앙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가정교회의 경우 앞으로 100명 이상이 모이기 힘들어질 것이다. 최악의 경우엔 교인 20명 이하 교회로 재편해야 될 수 있다. 지역사회 친화적 중국형 셀교회가 된다면 어떠한 정치사회적 외풍에도 흔들리

지 않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교회 재직자들이 목회자급으로 양성돼야 한다. 목회자와 재직들은 정기적인 재교육과 쉼 등을 통한 충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그들에게 맡기고, 특화된 사역, 즉, 청소년 관련 사역, 타문화권 선교훈련, 목회컨설팅, 그리고 상담사역 등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역들은 중국선교에서 많은 가능성과 수요가 있고 의미 있는 사역임과 동시에 작은 규모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역들이다.

III. 'COVID 19'와 선교

1. 'COVID 19'와 세상의 변화

질병은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고 국민들의 암묵적 동의하에 집행되고 있다. 즉 국가의 통제기능이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당위성 때문에 사실상 절대화에 가까운 힘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자국 우선주의와 민족주의 재 발흥으로 국가이기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글로벌화 되던 세계적 흐름과는 반대로 탈세계화, 국제협력 축소 등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 되면서 단체 활동보다는 개인적인 삶을 택하게 되고 스스로 소외를 선택하고 있다. 비대면 사회화 되면서 삶의 많은 영역들이 비사회화 비인간화의 길로 접어들고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질병 등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또한 예외가 아니다. 'COVID 19'의 발병지로 중국이 지목되고 초기



<올해 1월 봉쇄된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기차역을 순찰하는 경찰들>

에 대량의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하면서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고, 중국인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일들이 세계적으로 번져갔다.

2. 'COVID 19'와 선교환경

'COVID 19'는 선교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앞으로 타문화권 선교사역이 계속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위기감이 있다. 첫째는 국가 간의 이동이 금지되어서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선교지에 입국할 수 없게 되었다. 입국금지, 격리조치, 검역강화, 보안검색 강화 등으로 전통적 선교의 방식인 직접 가서(go)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이 현재는 불가능 상황이다. 둘째는 선교현지의 여러 지역이 안전을 위협 받고 있으며 통행제한으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생존을 위한 약탈과 강도 등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시설이 낙후로 인한 생명의 치명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코로나 19 외에도 흑사병, 대홍수 등으로 인하여 국가가 극도의 위협과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이것은 선교활동에 긴장을 가중시키는 상

신앙의 자유를 찾아(18)

●
마리아

황이다. 셋째로 현지인의 가정의 위기- 선교사역의 대상자인 현지인의 위기, 사회적 거리두기와 도시봉쇄 시행,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가정 내 범죄 증가, 현지의 선교관련 시설이나 교회 등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다.

3. 선교의 위기 대응 방안

선교는 멈출 수 없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위기들을 헤쳐 나갈 방안을 강구해본다. 첫째는 대면이 불가능한 위기를 비대면 기술을 통해 확장되는 기회로 삼도록 연구하고 노력하여 선교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출구 전략을 염두에 두고 사역을 했던 그렇지 않던 현지 리더십의 개발을 통해서 입국 금지에 대한 장벽을 넘어 새로운 선교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발달된 인터넷과 미디어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면 할 수 없는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글을 맺으며

중국의 경우는 인터넷이나 미디어는 세계 최첨단 수준이다. 신종교사무조례의 시행과 'COVID 19'의 여파로 입국과 대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이 상황은 중국교회에게도 그리고 중국선교를 하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돌파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여러 방법을 통하여 중국교회와 교류하며 그들의 영적인 필요와 관심사 등을 공유하며 복음주의 신학을 세워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중국교회에

창궐하는 이단 연구도 좋은 관심사가 될 것이다. 또한 중국교회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세계선교 비전을 함께 나누고 펼쳐갈 수 있는 길들을 함께 모색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선교중국 2030' 대회도 적극적인 협력과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기독교가 사회 변동기로부터 사회 중심부에 진출하고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길들을 나누는 사역도 필요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모든 인류는 상실(喪失)되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류의 유일한 살 길이라는 진리는 불변이며, 이 진리를 전해야 하는 선교는 주님 오실 때 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전염병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필요로 하는 때인 것은 분명하다. 전 인류의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하자.

상황이 어려울수록 본질에 집중하자,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자.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생명은 열방 끝까지 나아가 그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창조적 사역과 위대한 선교의 시대가 열릴 것을 바라보자. 모든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불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신뢰하고 불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몰두하자.

* 이 글에는 김종구의 글 "중국내 한국인 선교사들이 직면한 위기와 사역의 변화에 대한 요구", "신종교사무조례와 중국선교", "효과적 선교를 위한 방편으로서의 성경적 상담", 엄옥순의 글 "성경적 상담의 선교적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이광근의 글, "전환기 시대의 중국선교를 위한 제안", 함태경의 글, "신종교사무조례 시행과 중국교회, 그리고 우리는?", 등과 COVID 19 관련 기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한번 탈북을 결행했던 그 날을 회상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해본다. 탈북을 하는 그 길을 걷는 동안 몇 번의 위기 상황이 있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간신히 모면할 수 있었다. 돌이켜 보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나의 여정은 얼핏 우연히 시작된 것 같지만, 이내 오랜 세월동안 북한 땅에서 탕자 같이 살던 나를 찾으시고 이끄신 주님의 손길을 깨닫게 된다. 그 누구도, 아무 것도 보장할 수 없는 그 위험천만한 어둠 속에서,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 낯선 땅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명확하고도 넘치는 은혜를 다시 한 번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나는 명식과 함께 경비대원의 인도를 따라 북한 측 철조망을 통과하여 북한 땅을 벗어나는데 성공하였다. 철조망을 넘어선 그 곳은 지정된 군인들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었다. 조금 걸어 들어가자 발 밑에 강물이 느껴졌다. 익숙한 경험이었다. 몇 년 전에 탈북할 때도 이렇게 강물을 건넌 적이 있었다. 그 때는 옷이 다 물에 젖어 걸어가기가 힘들었다. 이번에는 신발과 바지를 벗어서 명식이 베낭에 넣었다.

그 친구 손목을 잡고 물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처음 한발을 디뎠는데 갑자기 땅이 훅 꺼지면서 배꼽까지 물이 차올랐다. 너무 놀라서 비명이 나

올 뻔했다. 말 그대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후회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눈을 질끈 감고 한 발자국씩 앞으로 천천히 나아갔다. 생각보다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금방 물이 머리까지 잠겨버렸다. 너무 놀란 나머지 명식이 오른쪽 어깨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중심을 못 잡던 명식도 휘청대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 손을 뿌리쳤다. 서러움과 공포가 밀려왔다.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여 물장구를 쳤으나 거센 물살을 이길 힘이 없었다. 명식이 "누나, 내 손 좀 잡아주세요"라며 소리치는데 그 목소리가 이미 너무 멀리 느껴졌다.

있는 힘을 다해 손발을 휘젓는데 어느 순간 몸에 힘이 다 풀리고 믿을 수 없을만큼 평온해졌다. "아, 이렇게 죽는 것인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발 밑에 돌이 느껴졌고 발을 디딜 수 있게 되었다. 물살에 이끌려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물살이 나를 강 저편으로 떠밀었던 것이다. 구사일생이었다. 다리를 움직여 물 밖으로 나와 옷에 있는 물을 짜냈다.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는 일만 남았다.

밤은 어두웠고 날씨는 얼 것처럼 추웠으며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피곤할 겨를도 없이 중국 쪽 철조망을 향해서 뛰었다. 얼마 안 되어 저 멀

리서 변방대 차가 보였다. 순찰 시간이었다. 저 멀리서부터 조명을 밝게 비추어 우리 근처까지 국경을 살살이 뒤졌다. 명식이와 나는 땅에 엎드려서 숨죽이고 기다렸다. 다행히도 변방대 차는 우리를 발견하지 못한 채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얼마나 걸어 들어갔을까. 눈앞에 중국 측 철조망이 보였다. 북한의 그것보다 훨씬 높고 단단해 보였다. 명식이는 남자라 그런지 2미터가 넘는 그 철조망을 훌쩍 넘어갔지만 나는 그 철조망을 넘느라 애를 먹었다. 철사가 살을 파고들어 이곳 저곳이 찢기고 피가 났지만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아프다는 생각이 안 들었다. 철조망을 뛰어 내리자 이제는 마침내 중국 땅이었다.

철조망에서 뛰어내린 그 자리에서부터 정처 없이 앞을 보고 뛰다가 걷다가를 반복했다. 곧이어 집 몇 채가 보였다. 조금 더 다가가자 마당에 있던 개들이 우리 둘을 보고 인정사정없이 짖었는데 마치 “너네 누구야”하고 소리 지르는 것만 같았다. 빨리 그 곳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이제 갈 곳이 없었다. 한 쪽은 철조망으로 가는 길이었고 다른 한 쪽은 낭떠러지처럼 보였다. 조금 더 걷자 과수밭 아래 불이 켜져 있는 집이 보였다.

과수밭을 헤치고 그 집 문 앞으로 걸어갔다. 문을 두드렸더니 어떤 시골남자가 문을 열어주었다. 우리는 문이 열리자마자 염치 불구하고 그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 사람은 아마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탈북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방에 들어가서 마른 옷 한 더미를 가지고 나와서 갈아입으라고 하였다. 알고 보니 그 시골남자는 명식이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고, 밀수를 하던 파트너였다. 알지도 못하고 두드렸으나

제대로 찾아왔던 것이다. 소경 문고리잡기라는 말처럼 참 놀라운 우연이자 감사의 제목이었다.

부엌 아궁이 앞에서 몸을 녹이는 와중에 그 남자는 간단하게 밥을 차려주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과수원 수확을 위해서 인력들이 올 터이니 눈에 띄지 않게 몸을 피하라고 일러주면서 오십미터 정도 떨어진 빈 집에 가있으라고 하였다. 우리는 밥을 먹고 그 빈 집으로 들어가서 미리 준비되어있는 이불을 깔았다. 명식이는 피곤했는지 코를 골면서 잤지만 나는 긴장해서 한참을 뒤척였다.

날이 밝자 어느 순간부터 오토바이 소리와 사람 소리가 웅성웅성 들렸고, 조금 지난 후에 아까 그 남자가 와서 밖으로 나가도 된다고 일러주었다. 그 남자는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라며 전화기를 주었다. 나는 예전에 중국에서 생활했을 때 있었던 지역에 전화하여 나의 탈북 소식을 알렸으나 지인들이 이곳으로 올 수는 없었고 내가 알아서 가야했다. 명식이는 친척 아는 분께 전화를 하더니 나보고 함께 가자고 했지만 웬지 이쯤에서 각자 헤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거절했다. 명식이는 곧 출발했고 나는 탈북 후 처음 홀로 남았다.

그 시골남자는 이 지역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보름 후에야 도와줄 수 있다고 하였다. 갑작스럽게 탈북을 하여 돈도 음식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왔기에 별다른 방도가 없었다. 나는 그 집에서 라면, 소시지 등 먹을 것을 이것저것 얻어다가 혼자 산으로 들어갔다. 민가에서 조금 떨어진 산 속에 임시 움막 같은 것이 있었다. 문도 없고 천정도 없는 공간이었지만 그곳에 있으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다. 얼마 안 되는 짐



〈북중 국경의 노후 철조망을 새로운 철조망으로 교체하는 중국 인부들 (KBS NEWS)〉

을 내려놓고 움막에 들어가 누웠다.

밤이 되자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썩은 나뭇가지가 내 머리 위로 푹푹 떨어졌고 커다란 산쥐들이 움막 안팎으로 들락날락 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중국 쪽에는 집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북한에서 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았다. 북한과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곳이었기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다. 중국에 온 것만 해도 심장이 뛰는 일인데 혼자서 그 긴 밤을 지새우는 것이 참 무섭고 고통스러웠다. 그때 하나님을 많이 찾았던 것 같다.

그 후 보름정도 그 움막에서 지냈다. 배가 고프면 낮에 마른 식정이를 주워다가 불을 때서 라면을 끓여먹거나 근처 다른 집 밭에 나는 작물들을 서리해서 먹었다. 목이 마르면 근처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먹었다. 낮에는 움막 안에 있으면 짐승이 오는지 사람이 오는지 알 길이 없어 길이

잘 보이는 소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있었다. 시골이라 평소에는 조용했지만 변방대 차가 다니는 소리가 하루에 수시로 들렸다. 보름이라는 시간 하루하루가 나에게 백일처럼 느껴졌다. 힘들 때마다 예전에 즐겨 불렀던 곡 “바위섬”을 불렀다. ‘너는 내가 미워도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혼자서 부르니 더욱 구슬픈 노래가 되어버렸지만 그 노래를 부르면서 힘든 마음을 달랬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가을걷이를 다 마친 그 시골남자가 내가 있는 움막에 올라와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려가자고 했다. 아침부터 과일박스를 운반하기 위한 차들이 그 집 앞에 줄지어 서있었다. 그 남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때, 마침 국경 변방대 경찰들이 지역 순찰로 들이닥쳤고, 나는 사람들 몰래 공지에 쌓여있는 과일박스 사이에 숨어들어갔다. 경찰들은 중국인들의 신분증을 다 검사한 후 돌아갔다. 나

는 시골남자의 말대로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한 뒤 운반차 뒷자리에 숨었다. 이렇게 숨어도 국경 변방대 초소를 지날 때 검열에 걸리면 끝이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나는 다른 지역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과일이 실린 트럭을 타고 도착한 그 도시에는 시골남자의 가정집이 있었다. 거기서 며칠간 신세를 지게 되었다. 아들도 있고 아내도 있는 집이었다. 남의 집에 얹혀있는 내 모습이 참 처량할뿐더러, 이렇게 가족과 동떨어져서 혼자 모험을 하는 내가 가여워보였지만 그렇게 감상에 젖어있을 틈이 없었다. 그 시골 남자는 원래 브로커 일을 하던 사람이라 나의 이름과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한국행 브로커들과 공유하며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었다. 그렇게 연결된 한국행 브로커는 나에게 어디까지 오라고 지시해주었다. 그런데 사실 이제는 더 이상 낮은 땅에서 혼자 위험하게 이동하는 모험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돈을 더 주더라도 내가 있는 지역까지 데리러 와달라고 하였다.

며칠 후 내가 있는 곳까지 한국행 브로커들이 찾아왔다. 이 사람들을 따라 밤새 장거리 버스를 두 번 갈아타며 또 다른 지역에 도착했다. 이 여정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으나 빨리 끝나리라는 기대는 이미 버린 지 오래였고, 다만 안전한 곳으로 탈 없이 도착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나를 맞이한 브로커 아줌마는 북한 여자였다. 이국땅에서 동향 사람을 만나니 반가움이 밀려왔다. 내가 온 후로 또 곧이어 몇 명이 도착했다. 나처럼 탈북을 하고 월경을 하려는 사람이 과연 꽤 되었다. 그 와중에 함께 탈북했던 명식이 생각났고, 한국에 갈려면 너도 여기로 오라고

연락했더니 그 다음날 바로 찾아왔다. 중국말도 모르는 명식이 그 넓은 중국 땅을 가로질러 여기까지 냉큼 찾아온 것이 신기했다.

며칠 후 8-9명 정도의 인원이 한 팀을 이루어 출발 준비를 하였다. 브로커의 지시를 따라 함께 길을 떠날 채비를 하던 도중, 출발 직전에 갑자기 나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다. 그동안 약했던 부위에 출혈이 심하게 일어나서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다. 중국인 신분증이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중국 병원에서 물품들을 구해다가 집에서 간단하게나마 링거를 꽂고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먼저 꾸러진 팀을 보내고 또 다시 그 다음 팀이 형성되기까지 약 한달 좀 안되게 기다려야 했다. 며칠동안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오고, 점점 새로운 팀이 꾸러졌다. 같은 팀에 태어난 지 7개월밖에 안된 아기도 있었다.

새로운 팀을 꾸리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다. 북한을 탈출하여 안전하게 중국 땅을 밟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불법체류자로서 중국에서 탈출하여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가는 일도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오늘도 그 때를 떠올리며 한낱 인간으로서 한치 앞길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지마는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한다.(계속)

+ 북한, '경제실패' 공식 인정... 내년 초 당 대회 개최 결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6차 전원회의를 주재하는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국 상무위원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경제목표 달성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미국 새 행정부가 꾸려지는 것을 지켜보며 대내외정책 새 판을 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은 지난 8월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7기 제6차 당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1월 당 대회 개최를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당 대회에서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당 대회 개최 시점은 북한 내부 사정보다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경제에 대북제재가 큰 걸림돌인 만큼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향방에 따라 발전 전략과 목표를 일부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공식적으로 경제성장 목표 미

달을 인정했다.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해 계획했던 국가 경제의 장성(성장)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 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4월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도 코로나19로 국가계획

을 하향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당 대회를 계기로 내부 기강을 다잡을 가능성도 제기되며, 이를 위한 부서 신설도 주목된다. 지난 8월 5일 정무국 회의에서 부서 신설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이어 14일 정치국 회의에서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신설 부서가 주민 통제 기능을 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북한 매체는 신설부서의 기능과 관련해 "사회의 정치적 안정과 질서를 믿음직하게 유지·담보하며 우리의 계급진지, 사회주의 건설을 철통같이 보위해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 연합뉴스, 8월 20일〉

+ 국정원 "북한 김정은, 김여정 등에 국정 위임통치"



이 9년간 통치하면서 통치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졌는데 그것을 줄이는 차원이고, 둘째는 정책 실패 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위임받은 쪽에 책임을 돌리려는 차원"이라며 "근본적으로는 9년간 통치하면서 갖게 된 자신감의 발로"라고 분석했다.

여야 간사는 이와 관련해 "위임통치는 북한에서 쓰는 용

국가정보원은 8월 20일 북한의 국정운영과 관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권력을 행사하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며 "김 부부장이 사실상 2인자이지만, 후계자를 결정하거나 후계자 통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위임 통치는 김 부부장 1인에게만 다 된 것은 아니고 (김 부부장이) 대남·대미 정책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하고 가장 이양받은 게 많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가 조금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또 "군사 분야에서는 당 군정지도부의 최부일 부장, 당 중앙군사위원회 이병철 부위원장 등에게 부분적으로 권한이 이양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그 배경에 관해 "첫째는 김 위원장

어가 아니고, 국정원에서 만든 용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는 "건강 이상이 없는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그 외에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해 말 군정지도부를 신설한 데 대해 "군에 대한 당 통제력 강화", 인민보안성을 사회안전성으로 이름을 다시 바꾼 것에 대해선 "공안통치 강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핵 문제 관련해서는 영변 5MW 원자로는 가동 중단 상태이며,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고 북한군 하계훈련량도 25~65%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풍계리나 동창리에는 특이동향이 없으나 신포조선소에서는 고래급 잠수함과 수중사출 장비가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있다고 전했다. <참고: RFA, 8월 20일>

+ 북한, 홍수피해 공식화... 외부지원은 배제



<홍수 피해를 입은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일대 (조선중앙통신, 로이터)>

390km²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고 살림집(주택) 1만6천680여세대, 공공건물 630여동이 파괴·침수됐다고 피해 규모를 공개했다. 또 도로와 다리, 철길이 끊어지고 발전소 언제(독)이 붕괴했다며 "강원도 김화·철원·회양·창도군, 황해북도 은파·장풍군을 비롯해 피해 상황이 핵심한 지역 주민들이 소개지에서 생활하며 커다란 생활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8월 13일 중앙당 본부청사에서 제7기 16차 정치국회의를 열고 "큰물(홍수) 피해를 빨리 가시고 인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다만, 이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 전파 우려 등을 이유로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 연합뉴스, 8월 14일>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북한이 홍수피해를 입고 있다. 조선중앙TV는 8월 13일 "평양에서 8월 상순 기간에 내린 비 양이 294mm 정도 된다"며 "기상 관측 이래 매우 많이 내렸다"고 전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평균 강수량은 300mm를 훌쩍 넘어, 128회의 폭우 현상도 관측됐다고도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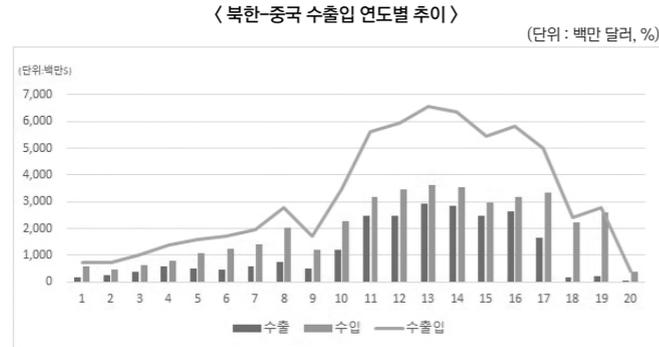
북한은 이번 홍수로 3만9천296정보(약

+ 무역협회, "북중무역, 올 상반기 67% 감소... 식자재-의료용품 수입 급증"

북한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상반기 중국과의 무역이 급감한 가운데 식자재와 의료용품의 수입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8월 20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북한-중국 무역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북한과 중국 간 무역액은 4억1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67% 감소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 주: 2020년 수출입 통계는 상반기(6월 누계) 합산치
 ** 자료: 한국무역협회

했다. 같은 기간 북한의 중국 수출은 전년보다 72.3% 감소한 2900만 달러, 수입은 66.5% 감소한 3억8300만 달러였다.

3월과 4월에는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북중무역 증감율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91.3%, -90%를 기록하며 급감했다. 이후 국경무역이 일부 재개되며 5월 -76.9%, 6월 -57.1%로 감소폭이 서서히

줄어들었다.

북한의 중국 수입은 크게 줄었으나 식자재와 의료용품의 수입은 소폭 감소하거나 오히려 늘어나면서 이들 품목의 수입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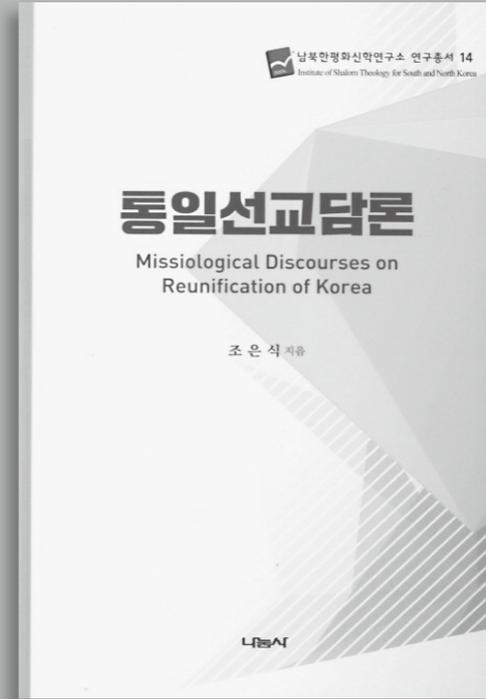
식용유의 수입비중은 16.5%로 작년의 2.9배, 밀가루는 9.1%로 3.3배, 설탕은 5.2%로 2.8배, 의료용품은 3.9%로 2.5배 증가했다.

북한의 주요 중국 수출품은 시계, 전기에너지, 페로실리콘, 가발, 텅스텐 등이었다. 10대 수출품 중에서는 전기에너지(-4.7%), 인조흑연(-1.7%), 잉곳(-36%), 황산칼륨(-17%)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출이 70~80% 가량 감소했다. <참고: 한국무역협회 보도자료, 8월 20일>

+ 정부, 대북라디오 제한 가능성 시사

통일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들의 비영리법인 등록을 취소한 데 이어 대북 라디오 방송 제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이종주 한국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장은 8월 11일 외신 간담회에서 ‘북한이 한국 인권 단체들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문제 삼으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시킨 것처럼 동일하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대북 라디오 방송이 문제가 되면 대북 방송 단체의 표현

의 자유, 북한 인권 증진 등 혜택뿐 아니라 한국 사회 다른 사람들의 가치와 이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이해 충돌이 일어나면 갈등이 되는 모든 가치를 고려해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NK뉴스가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8월 12일 대북 라디오 방송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조치 계획 여부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통일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참고: NK NEWS, 8월 11일 / RFA, 8월 12일>



제목: 통일선교담론
 저자: 조은식
 출판사: 나눔사
 발행일: 2020년 5월 29일
 가격: 12,000원

담론(談論), 사전의 정의로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논의함’이라는 뜻이다. 풀어서 써 보자면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특정 이슈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더 나은 방향을 찾는 논의의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쉽게 통일을 이야기하고 방안을 방향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통일선교에 대한 여러 담론을 살펴보는 일은 우리의 사고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더 나아가 더 나은 방향과 대안을 탐색하는데 유용한 일

이다. 이번에 소개할 책, “통일 선교 담론”은 통일 선교 관련 5가지 이슈에 대해 10여편의 논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며 더 나은 통일선교의 방향을 고민하는 책이다. 이 책은 5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각 통일정책, 북한 이해, 중국과 대북선교, 탈북민들의 사회적 적응과 통합, 한국교회의 통일준비이다. 각 부분마다 1-3편의 논문을 통해 각 부분의 주제와 관련된 주요 논점들을 탐색한다. 주제 하나 하나가 짧게 다루기는 상당히 큰 이슈이고 이를 간략하게 정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인데 대체로 요점을 잘 정리하여 쓰

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1부 1편 남북한 통일 정책이나 2부 2편 북한이 이해하는 민족개념과 기독교의 민족개념 관련해서는 복잡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과 개념들을 잘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3부 5편 대북선교 위기관리 고찰은 선교사 역류, 납치 사례 등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했으며 선교사가 활동 간에 주의해야 할 요소들도 잘 짚어내었다. 4부의 탈북민 사회적응과 통합 관련해서는 통계 조사를 활용하여 설득력 있는 서술이 이루어졌고, 단순 사회 문제를 넘어 교회의 참여와 그 맥락을 잘 제시했다. 책 전반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통일 선교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에 힘쓴 저자의 노력이 돋보인다.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저자가 가장 강조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꼽자면 바로 마지막 5부, 한국교회의 통일준비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3편의 논문으로 구성된 5부에서는 주로 화해와 살림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한국교회가 남과 북의 화해라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며, 그 이후의 살림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등 통일에 방점을 둔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다루었다. 일부 의문이 생기는 부분도 있었지만 진정한 통일은 정치적 결단이나 영토의 통합이 아닌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며, 교회가 주님의 본을 따라 남과 북의 화해를 이끌고 살림의 공동체를 추구해나가는 것이 통일선교의 큰 맥락이라는 골자는 전체적으로 공감되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도 흥미로웠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회담에 대한 평가가 아닌, 이러한

정치적 이벤트에 따라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대중들의 모습을 비춰보며 흔들리지 않는 바탕 위에 통일 준비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제안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한편 선교 현장에 관련한 서술은 아쉬움이 있었다. 먼저 3부 4편 탈북민 사역과 중국교회에 대한 내용에서는 현지법상 불법에 해당하는 활동을 경계하고 당국의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교회의 구제 활동 관점에서 중국 교회의 참여 가능성을 주로 논하고 있는데, 중국 교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탈북민은 중국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이고, 이들에 대한 구제도 당연히 불법이며, 그렇기 때문에 중국 교회가 북한 관련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도록 제약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혜로운 접근과 함께 불가피한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한 현장의 딜레마가 이야기되고, 중국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 등이 함께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책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2부 3편 조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과 지하교인에 대한 고찰이다. 조그련에 대해서는 그 설립과 역사적 변천 등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 지하교회에 대한 서술 부분이다. 북한에 이러저러한 형태의 지하교회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는 언급도 있지만 북한 지하교회의 존재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듯한 서술도 있었다. 한 예로 북한의 그루터기 신자의 규모에 대해 관련된 연구의 계산을 인용하여 약 1만 2천여명으로 추정하면서 이는 북한 조그련 산하 성도 및 조그련이 파악하

는 성도들의 합과 같다고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다르게 보면 그루터기 신자 가운데서 북한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실제 지하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의 존재를 배제한 것이다. 이렇게 북한의 지하교회에 대한 내용이 선교현장에서 확인하는 지하교회의 존재와 상당한 괴리를 보이거나 맥락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간혹 보이는데 다양한 자료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였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의 주요 방향과 성격에 대해서 알고 접할 때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제목과 같이 기본적으로 '통일'에 방점을 두고 여러 논문을 통해 선교적 담론을 다루는 책이다. 넓은 범위의 담론을 압축적으로 다루는 책인 만큼 적은 노력 대비 상당한 수준으로 통일선교 이슈를 살펴볼 수 있겠고, 그러한 통합적인 관점을 키우고자 하는 독자에게 상당히 유익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이나 통계 및 연구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소개되는 등 부가적인 장점도 있다. 반면 실제 선

교 사역의 디테일은 주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본다면 아쉬운 생각이 들 수 있다. 또 특정 이슈에 대해서 저자가 생각하는 바와 독자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활용하기에 따라 통일 선교를 위해 꼭 살펴보아야 할 이슈들에 대해 건강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면 책 내용 이상의 더 큰 유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무관심이 미움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다. 무관심의 무서움을 이야기하는 표현이다. 상당수의 교회가 그간 통일을 위해, 북한을 위해 기도해왔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교회들이 통일 선교에 대해 무관심, 또는 막연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책에서 다루는 통일 선교에 대한 담론은 앞으로 더 활발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통일선교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슈들이 교회 내에서 활발하게 이야기되고 다양한 의견이 자연스럽게 제시되는 가운데 통일 선교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넓혀지길 바래본다.

1.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 일부를 김여정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에게 위임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과 함께 내년 1월 당 대회 개최를 미리 결정하는 등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정책과 노선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는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북한이 그간의 악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증진되고 공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 주민의 수해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차단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8월 홍수까지 맞닥뜨리면서 주민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굶주림과 질병, 수해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필요한 도움이 공급되도록 기도합니다. 육의 양식뿐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라는 시련 가운데 교회의 활동이 위축되고 자칫 선교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코로나 이후 선교현장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역경과 고난이 단순히 한 때의 고통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갱신과 지경의 확장이라는 축복으로 승화되길 기도합니다. 교회가 신앙의 본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또한 복음적 평화통일의 소망의 비전을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선교현장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창의적인 방법으로 복음의 통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북한선교현장을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선교현장의 긴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가능한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지만 적극적 사역에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현장사역자들의 강건함과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사역의 문이 더 넓게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사역 대상이 되는 북한 출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외진 농촌지역에서 의료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운데서 신분을 숨기고 지내는 북한 여성들, 그리고 제3국을 비롯한 각국의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박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해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무관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경제적, 의료적 상황을 잘 극복하고 강화되어가는 통제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존되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의 국경이 막혀 있는 가운데 제대로 된 사역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지만 본 선교회에서는 북한 성도들에게 절실한 영육 간의 필요를 지원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교회의 지원 사역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 세계기독교박해지수 2020년 발표에서 북한은 19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가로 지목되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중단되고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무고한 이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박해 가운데 고통받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안전을 위해, 박해로 인해 순교하거나 산간오지 추방 및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형제자매들과 그 후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북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한국인 억류자(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 그리고 그 외 북에 붙잡혀 있는 조선족 사역자들의 석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7. 라디오 방송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최근 통일부 당국자가 8월 11일 외신과의 미팅에서 '북한이 한국 인권 단체들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문제 삼으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시킨 것처럼 동일하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공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가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고 하지만 대북 라디오 방송도 상황에 따라 제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써 북한 당국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전달하는 라디오 방송 선교 사역에는 큰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북한의 국경통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가운데서도 라디오는 복음을 복녘을 향해 전달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대북 복음 라디오 방송 제작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 단체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방송이 깨끗한 음질로 전달되고 들려져서 매일 밤마다 주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그 땅 가운데 들려지도록 기도해주시시오. 또한 라디오 사역이 정치적, 외교적 문제로 인한 중단 없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0년 9월 1일

월드와치리스트 2020

World Watch List

크리스찬들을 가장 박해하는 국가 TOP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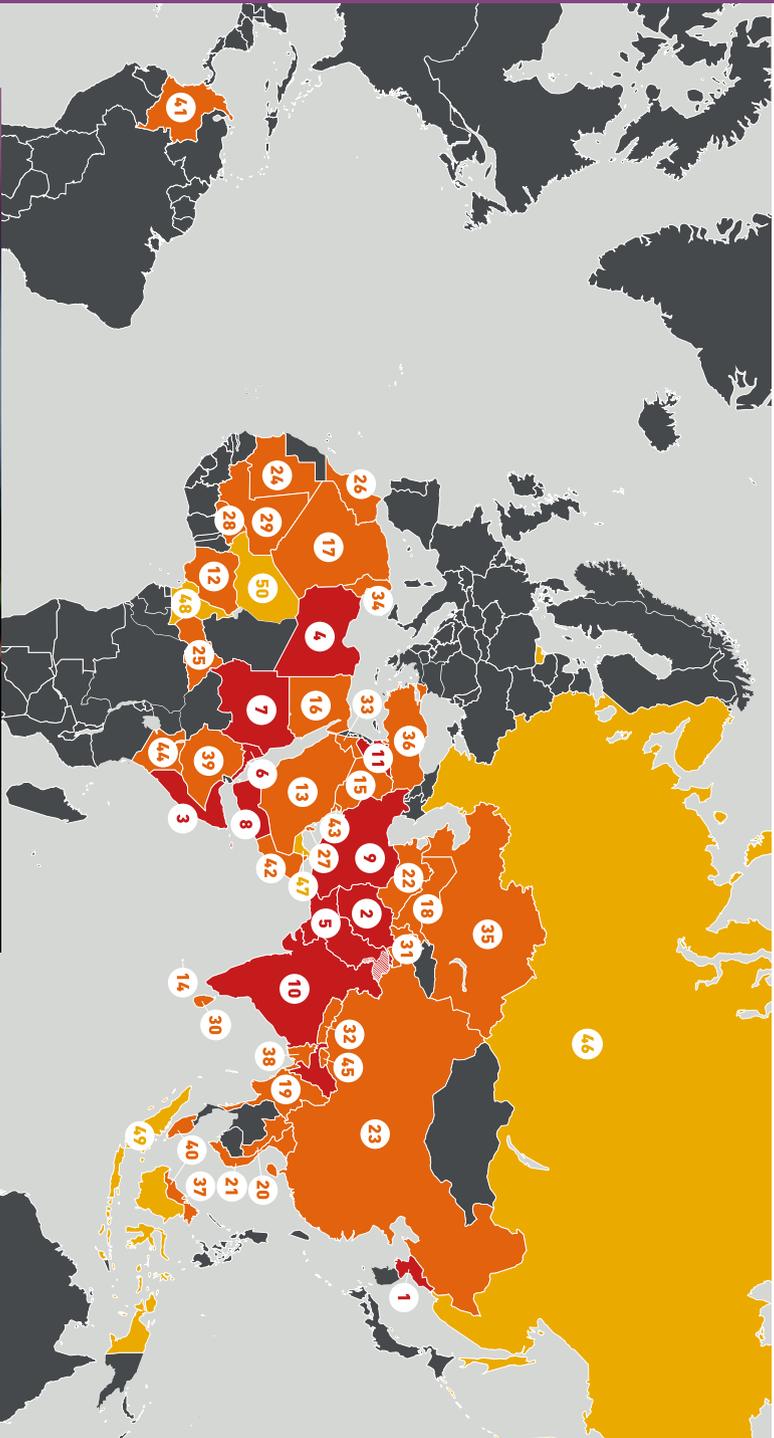
- | | |
|--------------|----------------|
| 1 북한 | 28 모로코 |
| 2 아프리카리스탄 | 29 카타르 |
| 3 소말리아 | 30 부르키나파소 |
| 4 리비아 | 31 말리 |
| 5 파키스탄 | 32 소르랑카 |
| 6 에리트레아 | 33 타지키스탄 |
| 7 수단 | 34 네팔 |
| 8 예멘 | 35 오만단 |
| 9 이란 | 36 튀니지 |
| 10 인도 | 37 카자흐스탄 |
| 11 시리아 | 38 타키 |
| 12 니제리아 | 39 브라키 |
| 13 사우디아라비아 | 40 방글라데시 |
| 14 몰디브 | 41 에티오피아 |
| 15 이라크 | 42 말레이시아 |
| 16 아진트 | 43 콜롬비아 |
| 17 알제리 | 44 오만 |
| 18 우즈베키스탄 | 45 쿠웨이트 |
| 19 미얀마 | 46 케냐 |
| 20 바탄 | 47 라시안양 |
| 21 베트남 | 48 아랍에미리트(UAE) |
| 22 투르크메니스탄 | 49 카메룬 |
| 23 중국 | 50 인도네시아 |
| 24 모리타니아 | 51 인도네시아 |
| 25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52 니제르 |

박해수준

● 극심한 수준의 박해 ● 매우 높은 수준의 박해 ● 높은 수준의 박해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는 크리스천의 박해가 가장 심한 50개 국가들의 순위를 정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오픈도어 연구자들이 130개 국가의 현장을 방문 또는 신체적 통찰력을 얻어, 오픈도어 연구자들이 각 국가의 박해수준을 상세하게 이해하는 평가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것은 독립적이고 공평한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의 개인적 경험과 교회에서 생환 기록을 알파 카우들에게 신빙성을 할 수 있는 증거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픈도어의 조사방법과 기준들은 국제종교자유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에 의해 감사를 받습니다. WWI 2020 데이터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가정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라고 크리스찬씨는 말합니다. “시간이 발생하면 다음 날 밤에도 우리는 가정예배를 드렸고 나는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을 읽도록 가르쳤어요. 아이들은 정말 강해요. 남편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무너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것을 사랑 하신다 하셨으니 나의 깨어진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전세계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티어와 똑 같이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티베트에서 살아남은 이들에게 후원물품들을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전세계를 통해 우리를 후원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우리는 고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세요.”



“황제들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팔미암아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로마서 1:15:30